

정조대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 *

박 현 순 **

1. 머리말
2. 정조 3년 11월 『皆有窩書目』 편찬까지의 장서 조성
 - 1) 皆有窩 · 閱古觀의 건립과 『개유와서목』의 편찬
 - 2) 『개유와서목』의 수록 도서
3. 정조 5년 6월 『奎章總目』 편찬까지의 장서 조성
 - 1) 국내 구입 도서
 - 2) 강화도 행궁 소장 도서
4. 정조 5년 6월 『규장총목』 편찬 이후의 서적 구입
5. 장서인을 통해 본 정조대 열고관 장서
 - 1) 정조의 장서인과 열고관 장서
 - 2) '홍문관'인 및 개인 장서인의 도삭
 - 3) 강화도 행궁 내부 소장 도서
6. 맺음말

1. 머리말

정조는 즉위 후에 규장각을 설립하고, 閱古觀과 西庫를 건립하여 각각 중국본 도서와 조선본도서를 보관하였다. 또 열고관의 중국본도서목록인 『奎章總目』과 서고의 조선본도서목록인 『西庫藏書錄』,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등도 편찬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서를 통하여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규장각의 도서 관리와 서목의 체계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규장총목』을 중심으로 열고관장서의 내용 분석도 진행되었다.¹⁾

그런데, 그간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정조실록』, 『내각일력』, 『홍재전서』의 기록, 현전하는 『규장총목』 및 『서서서목』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일치가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조 5년 6월 『열고관서목』과 『서서서목』을 편찬하고 『규장총목』이라고 일컬었다는 『정조실록』의 기사이다.²⁾ 이를 토대로 현전하는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이 정조 5년에 편찬되었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권희는 『서서서목』이 처음 완성된 것은 정조 16년경이며, 현전하는 『서서서목초본』도 이 무렵에 편찬된 것임을 밝혔다.³⁾ 또 정호훈은 현전하는 『규장총목』은 정조 5년의 『규장총목』을 수정·증보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증보시기를 순조 5년으로 추정하였다.⁴⁾

『정조실록』의 기사는 규장각의 설립과 서적 수집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을 특정일의 기사에 압축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전개된 시점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조실록』의 기사와 『승정원일기』, 『일성록』, 『내각일력』 등의 내용을 비교하면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일치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열고관 장서의 조성에 대해서도 『정조실록』에 그 대개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총목』의 완성을 알리는 정조 5년 6월 29일의 실록 기사에는 세손시절 정조의 개인 장서고였던 貞臘堂 소장 서적, 『古今圖書集成』 등 즉위 후에 새로 구입한 서적, 옛 홍문관 서적, 강화도 행궁에 소장되었던 명하사본 등으로 열고관 장서를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 기록 역시 정조대 전 기간에 걸쳐

1) 南權熙, 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 『奎章閣』 7; 宋日基, 1990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 『清浪鄭馳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정호훈, 2012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 『한국문화』 57.

2)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9일(경자).

3) 남권희, 앞의 논문.

4) 정호훈, 앞의 논문.

진행된 일을 한꺼번에 서술하여 열고관의 장서가 순차적으로 조성된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열고관 장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규장총목』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열고관 장서의 조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조실록』의 기사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 일반론적 고찰이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⁶⁾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정조대 규장각 열고관 장서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대에는 열고관 장서의 서목을 두 차례에 걸쳐 편찬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조 3년에 편찬한 『개유와서목』과 정조 5년에 편찬한 『규장총목』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두 서목의 작성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장서의 조성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중국본 도서의 장서인을 통해 각 경로로 유입된 서적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정조 3년 11월 『皆有窩書目』 편찬까지의 장서 조성

1) 皆有窩·閱古觀의 건립과 『개유와서목』의 편찬

정조는 세손시절 경희궁에서 거처하다가 경희궁 숭정문에서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후일의 이어를 준비하며 창덕궁을 수리하는 한편 창덕궁 후원에 宙合樓, 書香閣, 移安堂을 신축하고 奉謨堂을 개수하여 謨訓과 서적을 보관하는 장서처로 삼고자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즉위 이틀 후인 3월 12일에 御製閣, 곧 宙合樓의 터를

5)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9일(경자) “奎章總目成 上雅尙經籍 自在春邸 購求遺編 拓尊賢閣之傍而儲之 取孔子繫易之辭 名其堂曰貞隣 及夫御極 規模寢廣 丙申初載 首先購求 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肆 又移舊弘文館藏本及江華府行宮所藏皇明賜書諸種以益之 又倣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 按而購貿”

6) 강혜영, 1990 『朝鮮朝 正祖의 書籍 審集政策에 관한 研究:奎章閣을 중심으로』, 연세대학 도서관학과 박사학위논문.

정하고, 3월 22일 경에 터를 다진 후 4월 27일에 定礎, 立柱, 上樑을 하였다. 공사가 끝났다고 보고된 것은 7월 20일이다. 그리고, 두달 여가 지난 즉위년 9월 25일에 규장각의 각신을 임명하였다. 『정조실록』에는 이 날의 기사에 규장각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날의 『정조실록』 기사에는 閣古觀과 西庫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남은 閣古觀이라고 하는데, 상하 2층이다. 북쪽으로 꺾인 곳은 皆有窓라고 하며 중국본 서적을 보관한다. (중략) 서북은 西庫라고 하며, 조선본 서적을 보관한다.”⁷⁾

위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열고관과 서고를 건립하여 중국본과 조선본 도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열고관이 건립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정조가 鄭民始에게 열고관의 상량문을 짓게 한 것은 규장각의 설립으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정조 1년(1777) 8월 29일이고, 정민시가 상량문을 제진한 것은 9월 4일이다. 이즈음에야 비로소 열고관의 건립이 시작된 것이다.

정조는 당초 경희궁에서 영조의 상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조 1년 7월 28일에 일어난 암살 시도 사건으로 인하여 급하게 이어를 결정하고 8월 6일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때 경희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들도 창덕궁으로 함께 옮겨 왔다. 그러나 창덕궁에는 이 책들을 비치할 만한 전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서둘러 책을 보관할 건물을 짓게 하였다.⁸⁾ 그리고 정민시에게 열고관의 상량문을 짓게 한 것이다. 정조가 언제부터 열고관과 서고의 건립을 계획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정조 1년 가을 열고관의 건립은 갑작스러운 이어가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서책의 정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열고관의 건립이 먼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듬해 2월 28일 정조는 洪國榮과 함께 친히 皆有窓를 방문하여 內侍들을 시

7)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25일(계사) “正南曰閣古觀 上下二層 又北折爲皆有窓 藏華本圖籍 (중략) 西北曰西庫 藏東本圖籍”

8)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8월 29일(임술) “上曰 書冊所置之閣 何當畢役乎 尤鉉曰 非久當訖工矣 上曰 册子移御時 皆雜置諸處 不得出見 此則從速爲之好矣”

켜 서책을 정리하게 하였다.⁹⁾ 이즈음에는 이미 개유와가 완성되어 서책을 옮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리를 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를 전후하여 정조는 徐命膺에게 서책의 정리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였고, 서책의 정리는 鄭民始에게 주관하도록 하였다.¹⁰⁾ 그리고, 정조 3년 11월에 서명옹이 『皆有窩書目』을 艋正하기 위하여 내각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등장한다.¹¹⁾ 그리고, 그 이듬해인 정조 4년(1780) 4월과 10월에는 西庫冊子를 艋正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¹²⁾ 이로 미루어 보면 정조 2년과 3년 사이에 열고관의 서적을 정리하여 書目을 작성하고, 뒤이어 西庫의 서적을 정리하여 서목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정조 4년 5월에는 중국본 도서의 제목을 繕寫하고, 12월에 개유와의 책자를 새로 만든 九欵으로 옮겨 비치하였다. 이로써 열고관 서적에 대한 일차적인 정리는 마무리된 셈이다.

정조 3년에 작성된 『개유와서목』이 『규장총목』과 같이 해제를 담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서명과 저자, 책권수만을 정리한 서목의 형태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때 이미 凡例를 갖추고 있고 分類를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는 열고관 서적의 정리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2) 『개유와서목』의 수록 도서

정조 3년 11월에 작성된 『개유와서목』에 수록된 책은 크게 정조가 세손시절에 소장한 책, 『고금도서집성』 등 즉위 후에 구입한 책, 그리고 옛 홍문관도서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아래에서는 이 책들이 어떻게 열고관 장서로 구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9) 『승정원일기』 정조 2년 2월 28일(기미).

10)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12월 11일(계묘).

11) 『내각일력』 정조 3년 11월 23일 “徐命膺以皆有窩書目釐正事入來”

12) 『내각일력』 정조 4년 4월 21일 “徐龍輔釐正西庫冊子”; 『내각일력』 정조 4년 10월 17일 “鄭民始徐浩修徐龍輔釐正西庫冊子”

13) 『승정원일기』 정조 4년 5월 23일(신축).

(1) 세손시절 정조의 개인 장서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다수의 중국 서적을 수집하였다. 세손 시절에 지은 「경희궁지」에 따르면 貞隕堂과 春宮 건물인 尊賢閣에 부속된 宙合樓와 觀文樓 그리고, 곁에 있는 東二樓와 虹月樓에도 개인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다.¹⁴⁾ 『정조실록』에서는 정조의 개인서고로 정색당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는 강학을 하는 존현각의 부속건물도 서고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주합루에 상당한 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徐命膺이 우빈객으로 있을 때 지은 「宙合樓記」에도 보인다.¹⁵⁾ 서명웅이 처음 빈객이 된 것은 영조 48년(1772) 1월 27일의 일이다. 이즈음 정조는 이미 정색당, 주합루 등에 상당한 서적을 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중국본과 조선본 서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서명웅이 빈객으로 있을 때 지은 「貞隕堂記」에 經史子集 등 百家의 책을 수집하여 牙籤을 달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¹⁶⁾ 또 이해에 정조가 외조부 洪鳳漢에게 보낸 편지에는 藏書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⁷⁾ 물론 정조가 장서인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영조 45년(1769)의 기록에도 보이지만¹⁸⁾ 이 즈음은 정조의 서적관리에서 하나의 전기가 된 듯하다. 정조가 스물한 살 때의 일이다.

세손시절 정조가 중국본 서적을 구입한 경로로는 우선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었다. 가령 呂祖謙의 『大事記』는 북경에서 사온 것이다. 그런데, 정조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북경에 가는 사신들에게 黃幹(1152-1221)과 李燔이 편찬한 『주자대전』 초판본을 구해오라고 명하며, 마음을 다해 구하면 얻을 수 있다

14) 정조, 『홍재전서』 권4, 春邸錄 4 「慶熙宮志」.

15) 徐命膺, 『保晚齋集』 권8, 「宙合樓記」.

16) 徐命膺, 『保晚齋集』 권8, 「貞隕堂記」.

17) 김문식, 2013 「장서각에 소장된 『정조어찰첩』」 『문헌과 해석』 62, 142면 “冊子不可無圖章之印 故方欲刻而印之 刻名刻字 外間士夫標識之事 似不當以此爲法 只以軒號印之則太無味 某條於一冊三印 而上曰某軒 中曰某宮之章 下則下以爲說可乎 伏未知意下如何 詳細書敎伏望伏望”

18) 金鍾秀, 『夢梧集』 권3, 「春宮侍講日記」(己丑二月) 二十二日 “令曰 言顧行行顧言之說甚好 余亦知此事最難 常有自省而用力之意 故會以此名言矣 賤臣曰 臣未詳睿教矣 令曰 圖書中以顧庵爲名矣”

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¹⁹⁾ 그만큼 정조는 『대사기』를 어렵게 구했던 것이다. 만리이국 땅에서 원하는 책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보다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국내에 소장된 책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스스로 세손 시절에 책을 모으는癖이 있어서 중국에서 사온 책이나 故家의 소장 서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곧 구입하였다고 솔희하였다.²⁰⁾ 정조에게는 이 길이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에 소장된 중국본 『十三經注疏』에는 정조가 세손시절 사용한 장서인과 함께 장인인 金時默의 장서인이 남아 있다.²¹⁾ 또 국왕 때의 장서인 이 찍힌 『二十一史纂』에는 閔聖徽(1582-1647, 閔聖徵)의 장서인이 남아 있다.²²⁾ 이를 통해 정조가 국내에서 중국본 서적을 입수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정조가 세손대에 구비한 장서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조는 세손 때에 이미 상당수의 중국본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이것이 열고관 장서의 기초가 되었음에는 틀림없다.

(2) 『古今圖書集成』과 연행의 구입 도서

정조는 국왕으로 즉위한 후 사행을 통하여 대규모의 서적 수입에 나섰다.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이 『고금도서집성』이다. 『고금도서집성』은 강희제 때 편찬을 시작하여 28년만에 완성한 후 옹정 6년(1728) 구리활자로 64부를 인쇄하였다. 본책 만권, 목록 40권으로 전체 5,020책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영조 11년(1735) 동지사 일행이 이미 이 책의 구입을 타진한 적이 있었다. 동지사 일행은 『孝經衍義』, 『四書廣註』, 『武經七書』 등의 책을 구입하여 이듬해 4월에 돌아왔는데, 중국에 있을 당시 『고금도서집성』에 대한 이야기를

19) 정조, 『홍재전서』 권29, 「命使行購朱夫子書眞本繪音」.

20) 정조, 『홍재전서』 권161, 「일득록」 1 문학 1 “敎曰 予在春邸時 素癖儲書 聞有燕市所購 · 故家所藏 暢令貿來(待教臣李崑秀甲辰-1784-錄)”

21) 김시묵의 장서인은 책의 첫 면과 권1의 첫 면에 찍혀 있었다. 정조는 이 중 책의 첫 면에 있던 장서인은 도삭하고 그 위에 ‘弘齋’, ‘承華藏主’, ‘大文章自六經來’를 다시 찍었다. 『十三經注疏』(규중3261).

22) 『二十一史纂』(규중3676). 민성휘의 장서인은 5과로 인문의 내용은 아래로부터 ‘用拙堂藏’, ‘士尙’, ‘閔聖徽’, ‘驪興後人’, ‘乙巳進士己酉增廣’이다.

듣고 구입을 타진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의 가격은 책가 400냥, 운송비 200냥이었다.²³⁾

『고금도서집성』을 구입해 온 것은 40여 년이 지난 정조 원년 봄의 일이다. 정조 즉위년 중국에 갔던 徐浩修 일행은 銀子 2,150냥을 주고 5,020책 완질, 5백 20갑을 구입하여 돌아왔다. 당초에는 『사고전서』의 구입을 의도하였으나 차선책으로 이 책을 구입하여 온 것이다.²⁴⁾

『고금도서집성』은 이해 3월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낙 거칠이다 보니 책의 정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조는 이듬해인 정조 2년 3월 改裝할 의사를 피력하였다가 개장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²⁵⁾ 실제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듬해인 정조 3년 2월 29일에도 개장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개유와서목』이 작성된 후인 정조 4년 1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검서관들이 『고금도서집성』의 소제목을 추출하였고, 다시 해를 넘긴 정조 5년 10월부터 曹允亨이 『고금도서집성』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여 정조 6년 2월에 마무리하였다.²⁶⁾ 그 사이에 제목의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규7360)은 이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금도서집성』은 개장하는 과정에서 책수의 변동이 있었다. 당초 중국에서 수입할 당시에는 만권, 5,020책이었으나 『규장총목』에는 5,022책으로 실려 있다. 현존하는 규장각 소장본도 5,022책으로, 원편이 5,002책, 목록 20책이다. 즉, 개장 과정에서 원편 2책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정조 2년(1778) 3월 謝恩兼陳奏使 일행의 書狀官으로 중국에 갔던 沈念祖도 여러 종의 책을 구입하여 돌아왔다. 당시의 정사는 蔡濟恭, 부사는 鄭一祥이었는데, 정조는 특별히 심염조를 서장관으로 지목하였다.²⁷⁾ 그에게 특별한 지

23)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4월 19일(계축).

24)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2월 24일(경신).

25) 『승정원일기』 정조 2년 3월 25일(을유): 같은 책, 정조 2년 3월 26일(병술).

26) 『내각일력』 정조 4년 10월 8일: 같은 책, 정조 4년 10월 25일: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3일(경오).

27) 『승정원일기』 정조 2년 3월 3일(계해).

시를 내렸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 때 朴齊家와 李德懋가 채제공과 심염조의軍官 자격으로 사행에 합류하였다. 일행은 정조 2년(1778) 3월 17일 출발하여 윤6월 14일에 의주로 돌아왔다.

이 사행 때 이덕무가 기록한 『入燕記』에는 자신이 심염조의 부탁으로 유리창의 五柳居에서 수십여 종의 책을 구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朱彝尊의 『經解』와 馬驥의 『繹史』 등 희귀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규장총목』에 『經解』 552책, 『繹史』 32책이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이 때 구입한 책도 열고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규경의 기록에는 이 때 『經義考』도 구입해 와 열고관에 보관했다고 한다.²⁹⁾ 『규장총목』에는 48책본의 『경의고』가 수록되어 있다.

『입연기』에는 이외에도 심염조가 『摺紳全書』, 『御製全韻詩』 4책, 『楊椒山集』, 『陳其年集』, 顧炎武의 『亭林集』도 갖고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열고관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³⁰⁾

한편 당시 이덕무는 朴齊家와 함께 북경 유리창 서점가를 돌아다니며 嵩秀堂, 文粹堂, 聖經堂, 名盛堂 등 열두 곳의 서점에서 조선에 없거나 희귀한 판본의 책을 골라 목록을 만들었다.³¹⁾ 두 사람이 柳得恭, 徐理修와 함께 檢書官에 임명된 것은 그 이듬해인 정조 3년 6월 1일로, 이때는 아직 검서관에 임명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정조가 특별히 심염조를 파견했던 만큼 두 사람의 유리창 서점 순례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들이 작성한 목록이 정조의 중국본 도서 구입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28) 이덕무, 『青莊館全書』 권67, 入燕記 下 [正祖二年五月] 二十八日 “與在先 往琉璃廠五柳居 閱南船奇書 書狀囑余沽數十種 其中朱彝尊經解 馬驥繹史 稀有之書 而皆善本也”

2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分類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1 經典類 1 「經傳總說」(한국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제공)

30) 『규장총목』에는 『楊椒山集』은 『椒山集』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현전하지 않고, 『陳其年集』, 『亭林集』은 보이지 않는다. 『摺紳全書』는 이후에도 계속 수입되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으며, 『御製全韻詩』는 『규장총목』에는 5책으로 책수에 차이가 있다.

31) 이덕무, 『青莊館全書』 권67, 入燕記 下 [正祖二年五月] 十六日.

(3) 옛 홍문관 소장 도서

『정조실록』에서 열고관 장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옛 홍문관도서이다.

옛 홍문관은 창경궁에 있던 홍문관을 가리킨다. 창경궁의 옛 홍문관에 책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효종 8년(1656)에 등장한다. 당시 홍문관 부수찬이던 이만웅은 홍문관 서적의 과반이 창경궁 옛 홍문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책들을 창덕궁 홍문관으로 옮겨 오자고 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³²⁾

영조 4년(1728)에 다시 옛 홍문관에 서적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검토관 申致謹은 이 책으로 홍문관의 서책을 보충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신치근의 이야기로는 옛 홍문관의 소장 서적이 홍문관 서적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이 때 그 일부를 홍문관으로 옮겨 왔다.³³⁾

영조는 재위 27년(1751) 懿昭世孫(1751.8.27.-1752.3.4.)을 위해 창덕궁의 옛 승정원 건물에 世孫講書院, 옛 홍문관 건물에 衛從司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옛 홍문관 서적을 모두 강서원에 소속시켰다.³⁴⁾ 이로써 옛 홍무관 서적이 강서원에 이속되었다. 그리고, 영조 28년 3월 의소세손이 사망하여 강서원이 폐지되자 서적의 관리는 시강원으로 넘어 갔다.³⁵⁾

영조는 의소세손의 상이 끝나자 다시 옛 승정원 자리에 정조를 위한 강서원을 설치하고, 서적도 다시 경서각에 들이게 하였다. 이 때 강서원의 서적을 수보하게 하였는데, 당시의 규모는 약 1,000권 정도였던 것으로 이야기된다.³⁶⁾

영조 38년(1762) 부친 사도세자가 사망하고 정조가 왕위계승자가 되자 강서원은 시강원으로 개편되었다.³⁷⁾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시강원의 서적과 노비는 전례를 따라 한시적으로 홍문관에 이속되었다.³⁸⁾

32) 『승정원일기』 효종 8년 1월 22일(을축).

33)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3일(임자).

34)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윤5월 4일(기사).

35)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7월 27일(갑진).

36)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윤4월 6일(을묘).

37)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7월 24일(갑신).

38)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3월 11일(임오).

시강원과 강서원은 새 국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새 국왕이 즉위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면 폐지되었다. 이 경우 강서원의 서적은 시강원, 시강원의 서적은 홍문관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기관이 복설되면 다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었다.³⁹⁾ 즉, 강서원과 시강원의 서적은 기관의 치폐와 상관없이 별도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조는 창덕궁으로 이어한 직후인 정조 1년 8월 8일에 시강원과 강서원의 書目을 들이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낙점하여 內入하도록 하명하였다.⁴⁰⁾ 『정조실록』에서 옛 홍문관서적으로 언급된 책들은 이 때 내입한 강서원소속 옛 홍문관 서적이었다.

옛 홍문관 도서에 어떤 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영조가 옛 홍문관 책을 강서원으로 옮겨 온 후에 작성한 書冊置簿를 보고 귀한 책이 많다고 평가한 것을 통해 상당히 양질의 장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세조가 편찬한 『康寧殿口訣』이 있었는데, 영조는 이것이 원래 景福宮에 소장되었던 책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⁴¹⁾

정조는 옛 홍문관 책 중에 『宋元節要』라는 책이 있었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송원절요』는 세조 때에 경연과 과거 시험의 교재로도 등장하는데 『국조보감』에는 세조가 『대학연의』, 『통감강목』과 함께 治道에 절실한 책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정조대에는 『송원절요』라는 서명도 잊혀져 있었으며, 어떤 책인지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다.⁴²⁾ 이 역시 조선전기에 편찬된 책으로 보인다.

한편 정조는 옛 홍문관 소장본인 『天磨蠶頭錄』을 보완하여 朴闡의 『挹翠軒遺稿』를 간행한 바 있다.⁴³⁾ 『천마잡두록』은 박은이 승려 惠忱과 唱酬한 시를 엮은 책으로 명종 3년(1548)에 박은의 아들인 박공량이 간행한 것이다.

39) 폐지된 시강원 서적의 관리처는 정조 10년부터 內閣, 즉 규장각 이문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세기에도 그 관행이 유지되었다.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윤7월 1일(임신).

40)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8월 8일(신축) “上曰 春坊講書院冊目錄持入 賤臣承命奉進 上謂民始曰 目錄中點下冊子 並內入 可也”

41)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8월 23일(을사).

42) 『내각일력』 정조 7년 2월 2일; 『승정원일기』 정조 7년 2월 2일(계해).

43)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1월 7일(갑인).

이상의 사례들은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옛 홍문관 도서의 성격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이로 유추해 보면 옛 홍문관 소장 도서 가운데에는 조선 전기에 간행된 서적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후 시강원이나 이문원에 소장되었던 서적 중에도 옛 홍문관 도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3. 정조 5년 6월 『奎章總目』 편찬까지의 장서 조성

1) 국내 구입 도서

정조 3년 『개유와서목』은 열고관 장서의 완비라기보다는 기존의 서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서적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草案의 성격을 지닌다. 이 목록을 토대로 서책의 분류와 목록의 수정, 새로운 서적의 구비가 뒤따랐기 때문이다.⁴⁴⁾

정조 4년 이후 대규모로 서책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은 정조 5년 2월 7일에 보인다. 서호수가 새로 35부를 구입해와 개유와에 두게 하였다는 내용이다.⁴⁵⁾ 그리고 『정조실록』에는 그 직후인 2월 13일에 서명응에게 『규장총목』을 친술하게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런데, 한달 여가 지난 3월 말에 강화유수로 부임한 서호수는 沈念祖와 함께 내려가 강화 행궁에 있던 중국본 서적을 정리하여 109종 1,543책을 갖고 상경하였다.⁴⁶⁾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구매했던 서적과 강화내부 도서의 목록을 작성한 후⁴⁷⁾ 5월과 윤5월 두달 사이에 『개유와서목』을 수정하였다.⁴⁸⁾ 최종적으로 서명응에게 명하여 『규장총목』을 완성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6월 29일이

44) 『승정원일기』 정조 4년 5월 23일(신축).

45) 『내각일력』 정조 5년 2월 7일.

46)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8일.

47) 『내각일력』 정조 5년 5월 2일.

48) 『내각일력』 정조 5년 5월 5일 “沈念祖以司卷口傳啓曰 皆有窩書目校正 亦以初六日爲定而明日試講相值 何以爲之之意敢啓 傳曰 以初八日爲之”： 같은 책, 정조 5년 윤5월 29일 “原任直提學徐浩修以皆有窩書目有微 粟事入來”

다.⁴⁹⁾ 여기에는 정조 3년 11월의 『개유와서목』에 더하여 서호수가 새로 구입한 35부와 강화도에서 가져온 109종, 총 143종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서호수가 구입한 도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조 5년 2월 서호수는 중국본 도서 35종을 구입하여 입궐하였다.⁵⁰⁾ 당시 서호수는 형조판서로 국내에서 재직하고 있었다. 즉, 이 책은 서호수가 직접 중국에서 구입해 온 서적은 아니었다.

이즈음 중국에서 돌아온 사행은 2월 29일에 복명한 사운사 茂林君 塘과 李崇祐 일행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책이 사행보다 뒤늦게 도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구입해 온 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전의 사행인 진하겸 사운사 朴明源 일행이 돌아 온 것은 정조 4년 10월 말 이후의 일이다.⁵¹⁾ 이 때 구입한 서책이 뒤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행이 구입한 서적은 바로 摄文院에 납본되는데 비하여 서호수는 직접 35부를 가지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때 들어온 서적은 연행사들이 구입한 도서가 아니라 서호수가 국내에서 구입한 도서로 파악된다. 서호수는 『개유와서목』을 토대로 국내에서 서적의 수집에 나섰던 것이다.

정조 3년(1779)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초초본 『규장각지』에는 도서의 구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9) 이때의 『정조실록』 기사에는 『열고관서목』 6권과 『서서서목』 2권을 합쳐 『규장총목』이라고 일컬고 있다. 하지만 『홍재전서』에서는 중국본 서적의 목록 4권을 『규장총목』이라고 일컬어 『정조실록』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 때 『서서서목』이 완성되어 『열고관서목』과 『서서서목』을 합쳐 『규장총목』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되지 않는다. 정조 3년 11월 『개유와서목』의 작성 이후에 西庫의 소장 도서를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조실록』에서 『규장총목』이 만들어졌다고 한 날은 공교롭게도 서호수가 강화도에서 조선본 도서를 옮겨 온 날이다. 따라서 이날 서고의 서목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기사는 열고관 도서 목록인 『규장총목』의 편찬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이다. 남권희, 앞의 논문: 『내각일력』 정조 5년 6월 29일.

50) 『내각일력』 정조 5년 2월 7일 “沈念祖以領籤口傳啓曰原任直提學徐浩修新購冊子三十五部持入之意敢啓答曰冊子則持入原任直提學姑爲退去待下教後日入置皆有窩”

51)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0월 23일(무진).

“내각의 4고에 구비되지 않은 책이 京外에 있으면 이문원이 草記로 구입을 청한다. 그 값은 서울은 호조에서 마련하고, 지방은 備局에서 나누어 주거나 내각에서 직접 처리하되 반드시 값을 후하게 쳐주고 값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연경 시장의 서책으로 사울 만한 것이 있으면 초기를 올려 윤허를 받은 후 본각의 당상이 某庫의 은 몇 냥을 首譯 上通事에게 주고 包 외로 들여 보낸다는 뜻으로 평안도 감사에게 關文을 보내며, 연경에 가는 세 사신에게 주관하여 사오개 하는 것은 玉堂의 예와 같다.”⁵²⁾

이에 따르면 당시에는 서적 구입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규장각에 구비되지 않은 서적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구입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값을 낙락하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서적의 판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열고관 장서의 조성 계획에는 당초부터 중국 서적의 수입 뿐 아니라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서적의 구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정조 5년 5월 직제학 심염조는 선대의 서적이 燒失되었다고 개탄하는 정조에게 왕실의 世傳 書籍으로 외부에 유출된 책을 환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정치달의 처 화완옹주가에 소장된 서적이었다.⁵³⁾ 정조가 이 제안을 받아 들여 서책을 환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현재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는 鄭致達의 장서인이 도삭된 책이 소장되어 있다.⁵⁴⁾

2) 강화도 행궁 소장 도서

서호수는 2월 말에 자신이 구입해 온 서적을 직접 정리하였다.⁵⁵⁾ 그리고 3월 10일 강화유수에 제수되어 제학 沈念祖 및 直閣과 함께 내려가 강화 행궁의 内府에 소장된 서적을 점검하였다.

內府는 비상시에 국왕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국왕의 私儲를 보관하였다.⁵⁶⁾ 그 관리도 관료가 아닌 중관이 담당하였다. 여

52) 『규장각지』 초초본(규734) 購書 “內閣四庫所未備之書 或在於京外 摘文院草記請買 而其價 京則自度支拮据 外則自備局區畫 又或直自內閣經紀 要使優厚 不較其高下 至於燕市書冊有可購來者 草記允下後 本閣堂上 以某庫某銀幾兩畫給于首譯上通事 包外入送之意 行關平安道臣 且令赴燕三使臣照管貿來 同玉堂例”

53)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5월 16일(무자).

54) 『杜詩分類』(奎中 4132).

55) 『내각일력』 정조 5년 2월 20일.

기에는 錢穀, 軍器, 藥材 등을 보관하였는데, 영조 25년(1749) 『國婚定例』를 간행하고, 內入과 內需司 외에 內府에도 1건을 반사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적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내고는 궁궐뿐 아니라 행궁에도 있었는데, 정조 2-3년의 기록에 따르면 강화행궁 외에 인천 월미도 행궁에도 내고가 있었다. 이 지역의 내고 역시 保障을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反庫와 暴曬을 실시하였다.⁵⁸⁾ 이때에도 中官을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御史를 파견하였다.⁵⁹⁾ 즉, 내부의 서적도 국왕의 사저로 중관들이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규장각 각신이 춘추관 관원을 겸임하게 하여 內庫의 포쇄도 규장각의 직각과 대교가 거행하도록 하명하였다.⁶⁰⁾ 그리하여 정조 5년 내고의 점검과 포쇄를 위해 직제학 심염조와 직각이 유수 서호수와 함께 강화도 행궁에 내려가게 되었다.

심염조는 앞서 정조 2년(1778) 1월에 어사로 파견되어 江華府内外의 각 창고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⁶¹⁾ 다시 강화도에 내려가게 된 심염조는 그 때의 경험에서 강화 내고에 典章과 文字가 가득하여 규장각과 다를 바 없다고 진달하였다. 정조는 이 말을 받아 강화 내고를 '外奎章閣'이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고, 심염조에게 '외규장각'이라는 글자를 써서 강도 奉安閣에 현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상경하도록 하명하였다.⁶²⁾ 그리고, 3월 24일 서호수에게 有旨를 내려 내고 소장 책자를 점검하여 上送할 만한 책은 가지고 상경하도록 하명하였다. 외규장각의 설립이 추진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⁶³⁾

서호수는 규장각의 서목과 내고의 서목을 대조하여 규장각에 없거나 규장각에

56)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8월 8일(계묘).

57)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11월 23일(무진).

58)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월 26일(정해); 『승정원일기』 정조 3년 3월 19일(계묘).

59)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월 26일(정해).

60) 『승정원일기』 정조 5년 3월 10일(계미).

61)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월 22일(계미).

62) 『승정원일기』 정조 5년 3월 11일(갑신).

63) 『내각일력』 정조 5년 7월 16일.

있어도 판본이 정치하고 희귀한 책을 초출하여 3월 28일 중국본 서적 109종 1,543책을 갖고 상경하였다. 그는 경사자집 4부로 서적을 분류하였는데, 경부 7종, 사부 14종, 자부 41종, 집부 47종이었다.⁶⁴⁾ 그리고, 6월 29일에는 조선본 서적 39종 637책도 이문원으로 옮겨 왔다.⁶⁵⁾ 정조 5년 5월에는 『자치통감강목』도 가져 왔다.⁶⁶⁾ 이 책들이 『정조실록』에서 강화 행궁의 서적으로 언급된 책들이다.

정조 6년(1782) 4월에 작성된 외규장각형지안에는 중국본 도서 102종이 수록되어 있다.⁶⁷⁾ 이것과 서호수가 옮겨온 109종을 합치면 강화도 행궁에는 총 211종의 중국본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던 셈이다.

언제부터 강화도 행궁에 서적을 보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강화도를 行宮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광해군 9년(1617)에 등장하지만 실제 행궁을 조성한 것은 광해군 11년의 일로 보인다.⁶⁸⁾ 서적을 보관한 것은 이 이후의 일일 것이다.

조선본 서적 39종의 경우 목록을 토대로 현전하는 서적의 판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으로, 간행시기는 선조-인조대로 추정된다.⁶⁹⁾ 가장 간행시기가 늦은 책은 1670년대 초반 주조된 낙동계자로 간행된 『당송팔대가문초』이다.⁷⁰⁾ 이로 미루어 보면 강화도에 행궁을 건립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서적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64)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8일 “原任直提學江華留守徐浩修狀啓 本府內庫書籍點檢抄出之由 昨已馳 啓爲白有在果 經類七種四十五卷 史類十四種三百三卷 諸子雜家類四十一種 六百七十九卷 文集類四十七種 五百十六卷 都合一百九種 一千五百四十三卷 臣領運進呈于摛文院爲白乎旂 別具目錄 馳啓爲白臥乎事 啓下本閣”

65) 『내각일력』 정조 5년 6월 29일 “江華留守徐浩修狀啓 內庫書籍 東本中抄出精完之各件 上送于內閣之意 臣於向日筵席既已稟定是白乎等以 還營後即爲開庫抄出是白如乎 經史子集合三十九種 六百三十七卷 分作八隻 臣領運來納于摛文院爲白乎旂 冊名段 別單書啓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尗詮次善啓向教是事 啓下本閣” 이 날의 기사에 서호수가 가져온 조선 본 도서의 목록이 실려 있다.

66) 『내각일력』 정조 5년 5월 27일.

67)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규9133).

68) 『광해군일기』 권120, 광해군 9년 10월 8일(기해).

69) 『내각일력』 정조 5년 6월 29일; 송정숙, 2009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42.

70) 이재정, 2013 「洛東契字를 통해 본 조선시대 文人們의 지적 교류」 『민족문화연구』 60.

서호수는 가져온 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바쳤는데, 정조는 이를 보고 이전에 보지 못한 책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강화내부도서는 양도 많았거니와 회귀본이 상당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열고관에 이치된 중국본 도서의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조의 언급의 통해 『詩傳』, 『禮記』, 일본판 『文選』, 『性理大全』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 책을 두고 당대에 보기 어려운 ‘絕寶’라고 평가하였고, 서호수는 북경에서도 구하기 힘든 책이라고 평가하였다.⁷¹⁾

이를 『규장총목』에서 찾아보면 경부의 『시경대전』 12권과 『예기대전』 18권본은 모두 영락제의 敕修本으로 선덕 8년(1433)에 하사받은 것으로 ‘欽文之璽’가 찍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명의 하사본으로 기재된 것은 이 두 건뿐이다. 실록의 기사에서는 강화도 내부에서 명의 하사본을 가져온 것만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대에 입수한 다양한 중국본 서적들이 강화 내부에 보관되고 있었고, 그 중 일부가 열고관으로 이치된 것이다.

4. 정조 5년 6월 『규장총목』 편찬 이후의 서적 구입

정조 5년 6월 『규장총목』을 작성한 이후에도 서적을 증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먼저 이 해 겨울 동지사 黃仁點 일행이 서책을 구입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의 정사는 황인점, 부사는 洪秀輔, 서장관은 林錫喆이었는데, 이들은 정조 5년 11월에 길을 떠나 이듬해 4월에 돌아왔다.⁷²⁾

사행이 출발한 직후 심염조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달하였다.

“지금은 내각의 일이 다소간 두서가 잡혀서 서책으로 말하더라도 응당 있어야 할 책은 이미 다 수합하였습니다. 금번의 연행에서 구입할 책을 모두 다 구해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간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 외에는 신들이 계속해서 사들여서 빼

71)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9일 “上曰 册子中 多有前所未見者 至於詩傳·禮記倭板·文選·性理大全等書 可謂絕寶 今世似罕有矣 浩修曰 如此冊板及冊紙 雖北京亦難得之矣”

72)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1월 1일(기해); 『승정원일기』 정조 6년 4월 4일(경오).

진 것을 메울 것입니다. 책을 보관하는 곳이 점점 좁아지니 변통할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⁷³⁾

심염조의 이야기는 이때에는 어느 정도 서적의 구비가 일단락되어 추가로 비치할 도서의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 사행을 통해 구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책의 구비에는 강화도 행궁 서적이 큰 비중이 차지하였다. 사행을 통해 구입하고자 한 책은 장서의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책이었을 것이다.

황인점 일행은 이듬해 봄에 서책의 구입 사실을 보고해 왔다. 심염조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작성해 보낸 書冊件記 가운데 아직 간행되지 않은 繢三通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적을 구입하였다.⁷⁴⁾ 이 중에는 『古文奇賞』(82책), 『眉公秘笈』(61책), 『津逮秘書』(179책), 『石倉十二代詩選』(『석창역대시선』 85책), 『黃氏日抄』(60책), 『篆隸法帖』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篆隸法帖』을 제외한 책들은 『규장총목』에도 실려 있다.⁷⁵⁾

심염조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외에 내부에 소장되지 않은 책은 국내에서 구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 신들이 차례차례 폐풀 것입니다. 이로써 서적을 빼침없이 구비할 수 있으니 실로 다행입니다.”⁷⁶⁾

73) 『내각일력』 정조 5년 11월 16일 “念祖曰 今則閣事稍有頭緒 以書冊言之 應有冊子 既盡收合 而今番燕行所貿諸書 雖未知其盡數得來 而新刊難得者外 臣等亦當續購得 填補闕遺 而藏書之所 漸覺苟簡 當有變通之道矣”

74) 三通은 通典, 通志, 通考를 이르며, 속삼통은 『속통전』(1783), 『속통지』(1785), 『속문현통고』(1784)를 가리킨다. 정조 7년-정조 9년 사이에 간행되었다.

75) 『내각일력』 정조 6년 3월 3일 “念祖曰 臣卽見回還燕行副使 所書報則本閣別付冊子及紙筆墨 果皆貿來 所錄書冊件記中 繢三通 彼中工役 姑未畢 故不得貿來 而其餘冊子 率皆得來 從此內府書籍 漸就悉備 其中古文奇賞 則閱古樓所藏者 卽是古文彙編 而其題目誤書以古文奇賞 故錄送別付矣 幸得四續之善本 眉公秘笈 閱古樓所藏 卽是散帙 而今得全書完本 莊川碑編中 閱古樓所藏 獨缺左編 今亦得來 其他津逮秘書 卽叢書之大方家 石倉十二代詩選 卽詩家之巨帙 而黃氏日抄等書及篆隸法帖 俱皆得之云.”

76) 『내각일력』 정조 6년 3월 3일 “此外內府之小小所未備者 雖求之國中 不至甚難得 臣等當次次填補 從此書籍 可期無闕 誠幸矣”

심염조는 정조 6년 봄 사행이 성공적으로 서적을 구입해 옴으로써 열고관 장서가 완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정조 5년 『규장총목』의 편찬도 열고관 장서의 조성 과정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서적을 구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 셈이다. 심염조의 언급에 따르면 『규장총목』을 편찬한 이후에 추가로 구비할 서적을 선정하였고, 사행이 이를 구입해 옴으로써 비로소 열고관 장서가 완비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전하는 『內閣訪書錄』의 작성 시점이다. 『정조실록』에는 정조 5년 『규장총목』의 작성을 알리는 기사에서 당송의 고사를 모방하여 『방서록』 2권을 작성하여 내각의 신하들에게 구매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⁷⁾ 이 때문에 현전하는 『내각방서록』의 작성 시점도 정조 5년으로 파악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총목』의 작성 이전에 『내각방서록』을 작성하여 서적을 수집한 것으로 이야기된다.⁷⁸⁾

『내각방서록』에는 총 261종의 서적이 해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내각방서록』과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책은 『春秋辨疑』, 『廣博物志』 2종에 불과하다. 즉, 『내각방서록』에 수록된 책은 거의 대부분 구입하지 못했던 것이다.⁷⁹⁾

이것은 정조 6년 봄 심염조가 필요한 책은 거의 대부분 구비되었다고 평가한 것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내각방서록』이 『규장총목』의 편찬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견해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각방서록』은 정조 6년 봄 서책을 구입해온 이후에 추가로 작성한 구입 희망 도서 목록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각방서록』에 수록된 도서 중에 희귀한 책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장서가 구비된 이후에 목록을 작성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후 대규모를 서적을 구매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정조대 중반부터는 중국 서적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정조 10년(1786)부터는 명말청초의 문집과 碑官雜說을 비롯한 잡서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정조 16년

77)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9일(경자).

78) 강혜영, 1994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研究 『서지학연구』 10.

79) 위의 논문, 201-211면.

(1792)부터는 중국서적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잇따른 금수 조치는 정조의 서적 구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서적 수입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정조는 재위 16년 10월 19일 동지사 朴宗岳 등을 만난 자리에서 經書나 史書를 불문하고 중국서적은 절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명하였다.⁸⁰⁾ 그러나 이를 뒤 다시 박종악을 만난 자리에서는孔子의 세계나 古蹟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신경을 써서 구매해 오도록 당부하였다.⁸¹⁾ 정조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적은 여전히 사행을 통해 구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정조 14년 여름 건륭제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해 파견된 進賀使의 사행이다. 정사는 黃仁點, 부사는 徐浩修, 서장관은 李百亨이었다. 그런데, 서호수는 부사로 사행에 합류한 후 사행의 중요성을 들어 ‘문예가 있고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서관 박제가와 업유 李喜經, 首譯 洪命福을 대솔할 것을 요청하였고, 뒤이어 검서관 유득공도 사행에 합류시켰다.⁸²⁾ 여기에 포함된 업유 이희경(1745-?)은 박지원의 제자로 이전에도 두 차례 사행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서호수가 특별히 이들을 지목한 것은 이 사행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서호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서호수가 쓴 『연행기』에는 이 때 북경에서 『十三經注疏』, 『周易折中』, 『詩經彙纂』, 『書經彙纂』, 『大清會典』, 『盛京通志』를 구입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⁸³⁾ 이 중 『성경통지』를 제외한 4종은 『규장총목』에도 실려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중 『십삼경주소』, 『시경휘찬』, 『서경휘찬』, 『주역(본의)절중』은 두 질씩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시경휘찬』과 『주역절중』에서는 정조의 국왕 때 장서인이 확인된다.

서호수가 사적으로 서적을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열고관에 비치하기 위해 구

80)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0월 19일(갑신).

81)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0월 21일(병술).

82)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4월 29일(기묘): 같은 책, 정조 14년 5월 22일(임인).

83) 신익철 등편, 2014 『18세기 연행록 기사집성』, 518면.

입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전하는 『규장총목』 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이 책들도 열고관에 비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서적의 금수조처와 별도로 曆學에 관련된 서적도 지속적으로 수입되었다. 정조 16년과 정조 23년 역관과 감생들이 사재로 『律曆淵源』을 구입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정조 24년에도 역관이 역학 관련 서적 3권을 사온 것이 확인된다.⁸⁴⁾ 역학관련 서적을 구입해 온譯官이나 관상감 監生들은 포상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역학 관련 서적은 꾸준히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조 17년에는 관상감 제거 심이지의 요청으로 신간 역서의 구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⁸⁵⁾ 다만 역학 관련 서적은 업무용으로 수입한 서적으로 열고관이 아닌 관상감에 소장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조 20년 『闕里志』와 『闕里文獻考』를 구입해 온 역관을 加資한 사례를 통해 역관들의 서적 구입이 역학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왕의 시상을 기대한 서적 구매는 계속되었을 것이다.⁸⁶⁾

정조가 다시 대규모의 서적 구입을 시도한 일은 정조 23년에 나타난다. 정조는 당시 『주자전서』의 편찬을 기획하였는데,⁸⁷⁾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황간과 이번이 편찬한 『주자대전』 초판본과 『朱子語類』의 각판본을 모두 구매해 오도록 하명하였다. 이때는 徐灝修가 부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실제 구매해 온 서적은 『朱子大同集』과 『朱子實紀』와 『後漢書』 등 3종에 불과하였다. 서형수의 보고에 따르면 정조가 내린 목록에 수록된 서적은 중국의 학자들도 그 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희귀본이었다. 당초부터 구입하기 쉽지 않은 책이었던 것이다.⁸⁸⁾

순조 5년에 증보된 『규장총목』에는 정조 5년에 비하여 90여 종의 서적이 추가되었다.⁸⁹⁾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조 6년 2월에 수입한 서적

84)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4월 18일(병진): 같은 책, 정조 23년 5월 30일(정해): 같은 책, 정조 24년 윤4월 3일(을묘).

85)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0월 29일(기축).

86)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3월 13일(기미).

87)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제4장 『주자전서』의 편찬 구상」.

88) 『정조실록』 권52, 정조 23년 11월 17일(신미).

이었고, 정조 14년에 구입한 서적도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 초반에 비하면 서적의 증치는 미미하였다. 정조 6년 봄 어느 정도 서적이 완비되었다고 판단한 아래 서적 구입은 다소간 부차적이었으며, 특수한 목적에 필요한 서적들을 주로 구입한 탓일 것이다.

정조대 조성된 열고관 서적은 内府 또는 秘府, 内藏 또는 秘藏 서적으로 지칭되었다. 이것은 이문원의 서적을 内閣書籍으로 부른 것과는 구분된다.⁹⁰⁾ 물론 사료 상에서 内閣藏書가 열고관이나 서고의 서적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으나 관념적으로 열고관·서고의 서적은 국왕의 사저, 이문원 서적은 규장각이라는 관서의 도서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각신들은 열고관에 비치된 서적들은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조 5년 10월부터는 牙牌를 이용하여 館外로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⁹¹⁾ 그리고 이듬해에는 국왕이 이용하는 ‘內府書籍命入牌’와 각신들이 이용하는 ‘內府書籍請出牌’를 다시 주조하여 서적 대출에 이용하도록 하였다.⁹²⁾ 열고관은 군신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검서관 이덕무는 『武藝圖譜通志』를 편찬할 때 정조가 内府에 소장된 兵書 20여 권을 내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열고관의 秘書를 열람하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⁹³⁾ 정약용도 자찬묘지명에서 정조가 『古今圖書集成』 중의 「奇器圖說」을 내려 주고 引重과 起重의 법을 연구하게 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화성을 건설하는 데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⁹⁴⁾ 열고관 장서가 정조의 개인 장서가 아니라 정책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서적을 내주지는 않았더라도 서적의 편찬을 위해

89) 정호훈, 앞의 논문.

90)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2월 13일(병진) “內閣藏書 蓋倣有宋太清樓 皇明文淵閣之遺制 或購求新書 或翻刻善本 藏之東二樓 又有私刊之書 令外閣官 諸道臣隨卽印送摘文院 内藏 書籍華本 藏皆有窟 東本藏西庫 命原任提學徐命膺 撰奎章總目”

91) 『내각일력』 정조 5년 10월 25일.

92) 『내각일력』 정조 6년 7월 15일.

93)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24, 編書雜稿[四] 「武藝圖譜通志附進說」.

94)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16, 「自撰墓誌銘」.

열고관 서적을 열람한 사례들은 자주 보인다. 열고관 장서는 서적 출판과 정책 수립의 중요 자료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개인장서의 공적 기구화, 여기에서 열고관 건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장서인을 통해 본 정조대 열고관 장서

1) 정조의 장서인과 열고관 장서

조선시대 각 관서의 장서에는 官印이 찍혀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도서를 통해서도 흥문관, 시강원, 강서원, 이문원, 승정원, 내약방, 비변사 등 다양한 관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규장각 열고관과 서고 소장 도서는 별도의 장서인이 없었다. 따라서 장서인을 통해서는 열고관 도서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조의 장서인을 통해 그 일단을 추적해 볼 수는 있다.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다양한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서를 통해 정조의 장서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조선본 266종에서 71종, 중국본 104종에서 33종의 장서인을 확인하였다.⁹⁵⁾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목류’를 통한 전근대 국가아카이브 구축 사업팀’에서는 2015년 『규장총목』과 『열고관 서목』 2종을 토대로 열고관에 소장되었던 서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서 중에서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중국본 도서 121종을 확인하였다.⁹⁶⁾ 물론 두 조사는 모두 전수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국본 도서에서 확인되는 장서인의 종류도 상당부분 조선본과 중복된다. 하

95) 김영진·박철상·백승호, 2014 「正祖의 藏書印: 규장각 소장 朝鮮本을 중심으로」, 『규장각』 45; 백승호·김영진·박철상, 2015 「奎章閣所藏中國本에 암인된 正祖 藏書印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0. 중국본 도서의 장서인 연구는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의 印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96) 본 연구는 2015년 ‘서목류를 통한 국가아카이브 구축 사업’팀에서 조사한 중국본 도서 1,063종의 이미지 활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정조 장서인의 파악과 세손 시 장서인과 국왕 시 장서인의 구분은 위의 두 연구를 따랐다.

지만 조선본 도서에서만 보이는 장서인도 있고, 중국본 장서에서만 보이는 장서인도 있다. 예를 들어 ‘震宮圭章’이나 ‘萬機餘暇’, ‘一日二日萬機’, ‘蕩蕩平平平蕩蕩’ 등의 장서인은 중국본에서는 아직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貞隕堂’, ‘顧菴藏’, ‘顧庵藏’, ‘震离相生’, ‘朝鮮國’ 등의 장서인은 중국본에서만 보인다.⁹⁷⁾ 또 ‘觀物軒’, ‘弘齋’, ‘極’의 경우 조선본과는 書體가 다른 장서인이 확인된다.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위치는 일반적으로 장서인을 찍는 책 첫 면의 하단 오른쪽 부분이다. 대개 2-3과가 함께 찍혀 있는데, 그 조합은 19가지로 정리된다. 장서인의 조합을 보면 대개 맨위쪽에 別號印·齋官印으로 분류되는 堂號印이 찍혀 있다. ‘顧菴藏’, ‘觀物軒’, ‘蓍齋’, ‘弘齋’, ‘萬川明月主人翁’ 등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자나 국왕으로서의 신분을 반영하는 ‘震宮之章’, ‘貳極之章’, ‘萬機之暇’, ‘極’ 등의 신분인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大文章自六經來’와 같이 警句를 적은 閑文印이 찍혀 있다. 이러한 배열은 정조가 처음부터 조합을 염두에 두고 장서인을 찍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합은 도서의 분류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⁹⁸⁾

이 중에서 반드시 찍히는 장서인은 당호인이었다. 신분인이나 한문인은 선택적으로 찍혀 있으며, 각기 특정한 당호인과 짹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이극지장’은 ‘관물현’과 짹을 이루고 ‘승화장’, ‘승화장규’, ‘진리상생’은 ‘홍재’와 짹을 이룬다. 따라서 ‘홍재’-‘이극지장’이나 ‘관물현’-‘승화장규’와 같은 조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조의 장서인 조합은 당호인을 기본으로 그에 짹하는 신분인이나 한문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형태이다.

이외에 오른쪽 상단이나 중앙부분에 大印을 찍은 경우도 있다. 상단 오른쪽에 ‘朝鮮國’印을 찍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며, 상단의 중앙부분에 ‘貞隕堂章’, ‘春宮小璽’ 등의 大印을 찍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장서인들은 단독으로 찍힌 경우는 없고, 반드시 오른쪽 하단에 개인 장서인이 함께 찍혀 있다. 단독으로 찍힌 장서인은 공격지에 찍은 ‘朝鮮國御藏書’가 있을 뿐이다. 정조의 장서인은 하단의

97) 백승호 외, 앞의 논문, 344-345면 참조. 본 연구에서는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중국본 도서 121종의 도서를 확인하였고, 위의 연구에 추가하여 ‘貞隕堂章’, ‘顧菴藏’, ‘朝鮮國御藏書’를 정조의 장서인으로 파악하였다.

98) 정조 장서인과 도서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진 외, 앞의 논문; 백승호 외, 앞의 논문 참조.

당호인을 기본으로 신분인·한문인, 상단의 기타인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확인한 121종의 도서에서 확인한 장서인의 조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조의 장서인 조합

하단 부분의 조합					상단 및 기타 부분							
번호	구분	당호인	신분인	기타	朝鮮國御藏書	貞頤堂章	春宮	翰墨寶藏	讀書之樂 ⁹⁹⁾	없음	합계	
1	세손	顧菴藏								2	2	
2	세손	顧庵藏	震宮之章	己卯受冊辛 巳齒學						6	6	
3	세손		震宮			1				1	2	
4	세손	薈齋	重光之章				1	1			2	
5	세손	觀物軒								7	7	
6	세손	觀物軒	貳極之章							1	1	
7	세손	觀物軒	貳極之章	傳世寶藏 ¹⁰⁰⁾						3	3	
8	세손	弘齋	春宮				1			5	6	
9	세손	弘齋	承華章							4	4	
10	세손	弘齋	承華藏圭							5	5	
11	세손	弘齋	承華藏圭	大文章自六 經來						9	9	
12	세손	弘齋	承華藏圭	二十四代 ¹⁰¹⁾					1	8	9	
13	미상	弘齋	震齋相生							5	5	
14	국왕	弘齋	萬機之暇	極	2					4	6	
15	국왕	弘齋		極						10	10	
16	국왕	弘齋	萬機之暇		17					11	28	
17	국왕	弘齋	萬機	極	1						1	
18	국왕	弘齋			11					1	12	
19	국왕	萬川明月 主人翁		庭衢八荒胡 越一家						2	2	
20	기타	-	-	-	1						1	
합계					31	1	1	1	1	84	121	



〈그림 1〉 정조의 장서인 압인 사례

정조의 당호인 중 스스로 언급한 당호는 顧庵, 貞頤堂, 弘齋, 萬川明月主人翁이 있다. 이 중 정색당은 정조가 세손시절 경희궁에 머물 때 서책을 보관하던 곳이다. 현재까지 ‘貞頤堂章’인이 확인되는 사례는 『佩文詩韻』(규중5296) 1종뿐이다. 이 인장은 세로 8.9cm, 가로 9.7cm로 다른 장서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거대하다. 이에 비해 아래 쪽에는 이전의 장서인을 도식한 자리에 중국본 도서에서만 보이는 ‘震宮’(1.9cm×1.9cm)이라는 작고 다소 소박한 장서인이 찍혀 있다.¹⁰²⁾ 영조 48년(1772) 경 서명웅이 ‘貞頤堂記’를 지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즈

99) 讀書之樂何處尋數點梅花天地心.

100) ‘傳世寶藏’은 오른쪽 상단의 난 위 찍혀 있다.

101) ??二十四代衰鉄六千餘年.

102) 같은 자형의 ‘震宮’은 『佩文詩韻』(규중5272)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은 원래 7책이며, 『규장총목』에도 7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규중5272〉 6책과 〈규중5296〉 1책

음의 장서인일 가능성이 있다.¹⁰³⁾

‘顧庵’에 대해서는 영조 45년(1769) 書筵 자리에서 인장에 ‘顧庵’이라고 쓰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⁴⁾ 그리고 ‘홍재’는 정조의 별호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영조 50년(1774)에 쓴 「兩賢傳心錄初序」에서 스스로 ‘홍재’라고 칭하여 그가 이 이전부터 ‘홍재’라는 당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⁵⁾ 그 후 정조는 쭉 홍재를 당호로 사용하다가 정조 14년(1790)부터 ‘蕩蕩平平’을 당호로 사용하였고,¹⁰⁶⁾ 정조 22년(1798) 12월부터 ‘萬川明月主人翁’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하였다.¹⁰⁷⁾

한편 정조는 영조 48년(1772) 洪鳳漢에게 보낸 편지에서 3과의 장서인을 새기려는 뜻을 전하며 위에는 ‘某軒’, 중간에는 ‘某宮之章’이라 새길 계획을 전하고 마지막 장서인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¹⁰⁸⁾ 현재 정조의 장서인 가운데 ‘○軒’으로 된 장서인은 ‘觀物軒’ 뿐이며, ‘관물헌’과 짹을 이루는 장서인은 ‘貳極之章’이다. 그 중에는 欄上의 오른쪽 상단에 ‘傳世寶藏’이라는 장서인이 짹힌 경우들도 있다.

세손시절 정조는 다양한 당호인을 사용하였고, 이에 짹하는 신분인은 훨씬 다양하였다. 그 인장의 크기나 위치, 내용도 다양하였다. 새로운 장서인을 계속 만들어 이런저런 실험을 하며 세손으로서의 위치에 걸맞은 자신만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 가운데 당호인은 대략 ‘고암장’ - ‘관물헌’ - ‘홍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즉위 이후의 당호인은 거의 대부분 ‘홍재’인을 사용하였다. “탕탕평평실”과 “만천명월주인옹”도 당호로 내걸기는 했지만 장서인으로 사용된 사례는 많지 않

으로 나뉘어져 있다. 粧績의 상태와 서명을 쓴 편지로 미루어 원래 한질이었던 책으로 판단되며, 권차도 연결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폐문시운』해제 참조.

103) 徐命膺, 『保晚齋集』 권8, 「貞隕堂記」.

104) 金鍾秀, 『夢梧集』 권3, 「春宮侍講日記」己丑(1769)二月 二十二日.

105) 정조, 『홍재전서』 권4, 春邸錄 4 「兩賢傳心錄初序」.

106) 李晚秀, 『履園遺稿』 권8, 「日得聖語錄」政事;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5월 12일(임진).

107) 정조, 『홍재전서』 권10, 「萬川明月主人翁自序」.

108) 김문식, 2013 앞의 논문, 142면.

았다. 사용 기간이 길었던 만큼 ‘홍재’는 다양한 자체가 전한다. 조선본 도서 장서인 조사에서 확인된 ‘홍재’ 장서인은 모두 16종이다. 중국본 조사에서는 3종이 더 확인되었고, 최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기탁된 해군사관학교 소장 도서 가운데서 1종이 더 확인되었다. 총 20종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본에서 사용된 ‘홍재’인은 8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국왕으로 즉위한 후에 사용한 ‘홍재’인은 2종만이 확인된다. ‘萬川明月主人翁’인도 2종의 도서에서만 확인된다.¹⁰⁹⁾

즉위 이후에는 신분인이나 한문인의 내용도 극도로 단순화되었다. 중국본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萬機之暇’, ‘萬機’, ‘極’ 세 종류뿐이다. 또 ‘홍재’에 비하면 종류도 그리 많지 않다. 조선본 조사에서는 萬機와 관련된 장서인이 ‘萬機之暇’ 3종, ‘萬機餘暇’ 2종, ‘萬機’ 1종, ‘一日二日萬機’ 1종이 확인되는데, 중국본에서는 ‘만기지가’ 2종, ‘만기’ 1종이 확인된다. ‘만기지가’는 조선본과 동일하며, ‘만기’는 새로 운 인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에서 보면 세손 때의 장서인이 찍힌 책이 60종, 국왕 때의 장서인이 찍힌 책이 60종, 미상이 1종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세손 때 수집 장서와 국왕 때의 수집 장서가 반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양상이 실제 열고관 장서의 조성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121종을 『규장총목』과 비교해 보면 65종은 『규장총목』의 서명과 현재의 표지서명이 일치하고, 책수도 동일하다. 또 서명은 다르지만 책수가 동일한 책이 22종, 합책되었던 책을 분책한 것으로 판단되는 책이 15종이다. 따라서 총 102종이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로 판단된다.¹¹⁰⁾ 그 외 경우, 특히 경서류는 대전류가 분책된 경우가 있어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하게 『규장총목』에 수록되지 않은 책도 있다. 『情史類略』(규중4304, 표지서명:情史), 『閑闥錄』(규중4298-v.1-2, 표지서명:閑闥錄), 『陳眉公訂正叢書』(규중3409-v.1-10, 표지서명:遊名山記), 『晦庵先生朱文公易說』(규중2667-v.1-10, 표지서명:朱文公易說), 『海

109) 『古周易』(규중4521), 『晦庵先生朱文公易說』(규중2667).

110) 정조는 열고관의 장서를 정리하면서 중국본도서를 조선식으로 개장하고 표지 서명도 새로 쓰게 하였다. 이 표지서명이 『규장총목』의 서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뒤에 만들어진 『열고관서목』을 보면 서명이 달라진 책들도 있다.

瓊玉蟾先生文集』(규중5323, 표지서명:白玉蟾集) 등이 그 예이다. 이 책들은 고종대 전반에 편찬된『열고관서목』에 처음 보인다.¹¹¹⁾

또『규장총목』에는 錢謙益의『牧齋初學集』16책과『牧齋有學集』6책이 실려 있는데, 규장각도서 중에는『牧齋有學集詩註』6책(규중4284, 표지서명:牧齋有學詩集),『牧齋有學集』16책(규중5013, 표지서명:牧齋集),『牧齋初學集詩註』8책(규중4285, 표지서명:牧齋初學集詩註)에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목재초학집시주』8책도 위의『열고관서목』에서 처음 보인다. 즉, 정조의 장서 중에서도『규장총목』에서 누락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다.

정조는 재위 기간에 많은 서적을 간행하고 반사하였다. 이 때, 西庫, 史庫, 內閣(擣文院) 반사본과 함께 늘 内入本이 있었다. 그 내입본이 어디로 갔을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19세기 왕실에는 규장각 외에도 寶文閣, 大畜觀, 隆文樓·隆文樓 등 별도의 서고가 존재하였다. 또 세자궁의 경우에도 관서인 시강원 외에 별도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 규장각도서 중에 나타나는‘春坊內府之藏’印은 시강원과는 구분되는 세자의 私儲에 소장된 서적을 가리킨다. 정조 역시 내전에 별도의 책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또 조선본 서적의 경우 정조가 장서인이 찍힌 책을 하사한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정조가 서형수에게 하사한『경서정문』에도 세손시절의 장서인이 찍혀 있었고,¹¹²⁾ 李晚秀에게 하사한『五經百選』(古貴1321)에는‘奎章之寶’와 함께‘弘齋’,‘萬幾一日二日’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정조의 장서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책은 아닌 것이다.

반대로 정조대 열고관에 소장한 책들에 모두 정조의 장서인을 찍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서의 책권수와 표지서명만을 기준으로 보면『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절반 이상이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은 1/3 가량에 불과하다.¹¹³⁾ 이 책들

111)『閩古觀書目』(한국학중앙연구원, K2-4654).

112) 徐灝修,『明皇全集』권10,「敬跋宣賜經書正文後」.

113)『규장총목』이후에도 고종대에 여러 차례 열고관의 장서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중『열고관서목』(한국학중앙연구원, K2-4654)과『규장각서목』(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1670)

이 다 정조대 열고관의 장서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조가 열고관 소장 도서에 모두 장서인을 찍었다는 가정은 무리가 있다.

한 예로 정조 14년 서호수가 중국에서 구입해 온 『詩經彙纂』, 『書經彙纂』의 경우를 보면 『규장총목』에는 『시경휘찬』 24책, 『서경휘찬』 24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欽定詩經傳說彙纂』(奎中2691)과 『欽定書經傳說彙纂』(奎中2663)이 이 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책 역시 조선식으로 개장을 하였는데, 표지서명의 글씨체도 동일하다. 같은 시기에 개장된 것이다. 그러나 『詩經彙纂』에는 정조의 장서인이 있지만, 『서경휘찬』에는 정조의 장서인이 없다. 정조의 장서인은 선택적으로 압인된 것이다.

2) ‘홍문관’인 및 개인 장서인의 도삭

중국본 도서의 장서인 가운데 제일 주목되는 것은 ‘조선국’인이다. 이 장서인은 책의 구성에 따라 ‘弘齋’, ‘萬機之暇’, ‘極’ 등의 장서인과 같은 면에 찍은 경우도 있고, 책의 첫면에는 ‘조선국’인, 권1의 첫면에는 ‘홍재’인 등으로 나누어 찍은 경우도 있다. 면을 달리하였다는 것은 ‘조선국’인이 다른 장서인들보다 위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국’인은 현재 『고금도서집성』 등 31종의 서적에서 확인되며, 그 위치는 상단의 오른쪽, 즉,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다. 통상 官署印이 찍히는 자리에 이 인장을 날인한 것은 이 장서인에 보다 공적인 의미를 부여 한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국’인은 ‘홍재’인이 찍힌 책 59종 가운데 31종에 서만 확인되어 이 역시 선별적으로 날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⁴⁾

증의 「열고관서목」을 통해 소장도서의 지속과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열고관서 목」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박현순, 2015 「『규장각서목』과 규장각 장서」 『한국문화』 70.

114) 이와 유사한 인장으로는 ‘朝鮮國御藏書’가 있다. 정조는 재위 5년 세조 때 梁誠之가 內藏書籍에 ‘朝鮮國某歲御藏’, ‘朝鮮國御藏書’라고 날인하자고 건의했던 일을 언급한 바 있다. 현존하는 서적 가운데도 ‘朝鮮國御藏書’라는 장서인이 찍힌 도서가 3종 확인된다. 이 중 『畿輔通志』(奎中 3662-v.1-64)와 『諧聲品字箋』(奎中 4421-v.1-20)은 중국본이고, 『당송팔자백선』은 조선본인데, 장서인은 표지 안쪽의 공격지에 단독으로 찍혀 있다. 『당

朝鮮國	弘齋	朝鮮國-弘齋	[弘文館]
『何大復先生集』(규중4865) v.1	『하대복선생집』 v.2	『하대복선생집』 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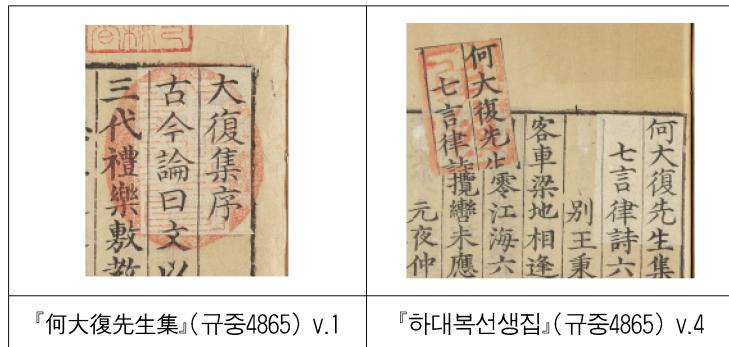
<그림 2> '朝鮮國印'의 압인 사례

그런데, '조선국' 장서인이 찍힌 부분에는 31종 가운데 18종에서 이전의 장서 인을 도삭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중 『하대복선생집』, 『경세설요』 등 4종의 도서에서는 도려낸 '홍문관'인이 책 속에 남아 있다. 따라서 이전에 찍혀 있던 '홍문관'을 도삭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 '조선국'인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옛 홍문관에서 강서원을 거쳐 열고관으로 이관된 도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인은 없지만 같은 자리에 도삭이 있는 책 17종이 더 확인된다. 이 중 『곡성산관시집』 등 7종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홍문관'인이 도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국인'의 압인 여부와 상관없이 '홍문관'인의 도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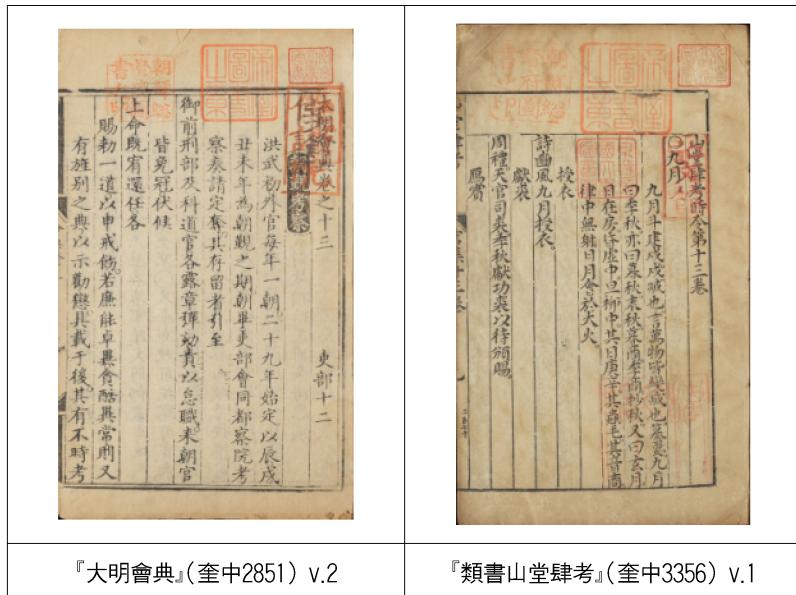
'홍문관'인이나 같은 자리의 관인을 도삭한 책은 총 35종을 확인하였다. 이 중 '조선국'인이 있는 책 18종 가운데 15종, '조선국'인이 없는 책 17종 가운데 13종 등 총 28종이 표지서명과 책수가 『규장총목』에 실린 도서와 일치한다. 즉, '조선국'인의 압인 여부와 상관없이 책 본문의 첫머리가 도삭된 책은 옛 홍문관 도서로 열고관에 이속된 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팔자백선』이 정조 5년에 간행된 책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정조가 양성지의 일을 전한 후 '조선국어장서'를 새겨 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서인이 찍힌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림 3〉 ‘弘文館’인의 도삭 사례

반면 ‘홍문관’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는 시강원이나 이문원의 장서인과 같이 찍혀 있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大明會典』(규중2851)의 사례를 보면 제1책에는 ‘홍문관’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제2책에는 그 위에 ‘시강원’인이 겹쳐서 찍혀 있다. 당초 옛 홍문관 서적이 강서원·시강원으로 이관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그림 4〉 弘文館과 侍講院, 摘文院 장서인의 중복 암인 사례

또 『類書山堂肆考』 등에는 위쪽에는 ‘홍문관’, 아래쪽에는 ‘이문원’인이 찍혀 있다. 이런 경우는 모두 고종대 간행된 「이문원서목」에 수록된 책이어서 이문원 도서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5년 3월 29일 정민시는 열고관의 책 중에 중복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각각 1질씩을 갖춘 후 나머지는 西庫나 다른 곳에 비치하자고 제안하였다.¹¹⁵⁾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 옛 홍문관 도서 중 일부가 이문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이 도삭된 경우와 도삭되지 않은 사례는 대비를 이룬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열고관에 유입된 옛 홍문관 도서는 ‘홍문관’인을 도삭하고 그 중 일부에 정조의 장서인을 찍었으며, 중복본으로 이문원에 이속된 도서는 ‘홍문관’인을 그대로 남겨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본 도서에서 관인이 도삭된 경우는 열고관 장서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정조의 장서인이 있는 조선본 도서 가운데는 ‘시강원’인이 함께 찍힌 경우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중국본에서는 ‘시강원’인이 정조의 개인 장서인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강원’인의 크기는 ‘홍문관’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홍문관’인과 마찬가지로 ‘시강원’인도 도삭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강원에는 당초부터 조선본이 많았기 때문에 시강원 도서 중 열고관으로 유입된 도서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한 중국본 도서 가운데 관인을 암인하는 우측 상단 부분이 도삭된 도서는 옛 홍문관의 소장 도서였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정조의 개인 장서인이 찍힌 오른쪽 하단 부분이 도삭된 책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 중 金時默과 閔聖徽의 경우 책의 다른 부분에 장서인이 남아 있어서 원 소장자가 확인된다. 두 책은 모두 『규장총목』에 수록된 책으로 열고관에 유입된 책으로 판단된다. 김시묵의 경우 명말의大臣인 葉向高(1559-1627)의 상주문을 모아 편찬한 『綸扉奏草』(규중4110)에서도 장서인이 도삭되어 있다. 이 경우 정조의 장서인은 없지만 『규장총목』에는 ‘『綸扉疏草』 21책’으로 수록되어 있다. 역시 열고관에 있었던 책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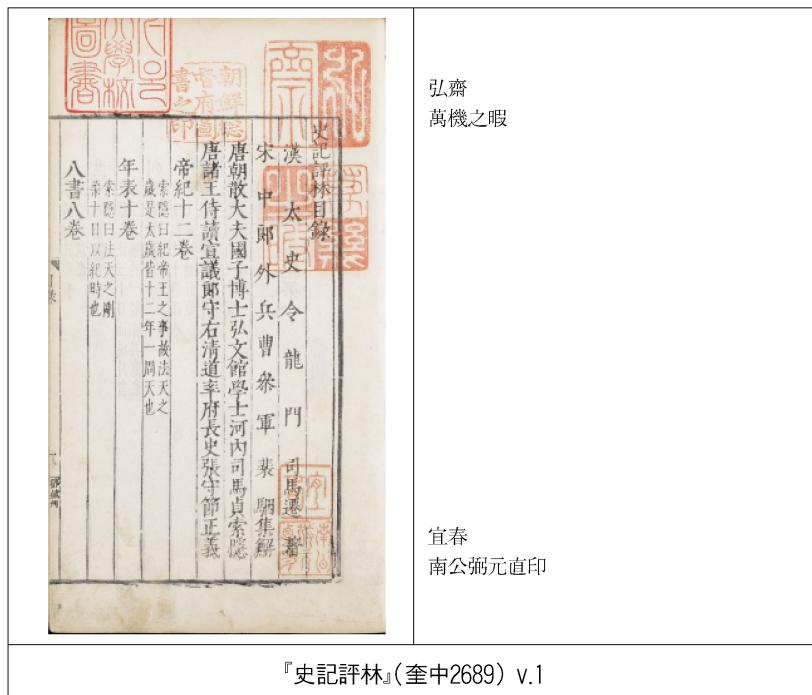
115)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9일.

정조의 장서인 弘齋 承華藏主 大文章自六經來	금시묵의 장서인 金時默印 而慎	정조의 장서인 朝鮮國 弘齋 萬機之暇 極	閔聖徽의 장서인 乙巳進士己酉增廣 驪興後人 閔聖徽 士尙 用拙堂藏
『十三經注疏』(奎中3261) v.1	『二十一史纂略』(奎中3676) v.1		

〈그림 5〉 개인 장서인의 도삭 사례

이 외에도 정조의 장서인은 없지만 개인장서인이 도삭된 사례는 상당히 많아 있다. 이 중 원소장자가 확인되는 경우로는 金洪福(1649-1698), 金光遂(1696-?), 元仁孫(1721-1774), 元繼孫(1733-1772), 李夏坤(1677-1724), 鄭致達(?-1757) 등이 있다. 김시묵 이하 실명이 확인되는 개인 장서인이 도삭된 경우는 모두 23종인데 이중 21종이 『규장총목』에 실린 서적과 서지사항이 일치한다.

특이하게 정조가 개인 장서인을 남겨 두기 위하여 암인의 위치를 바꾼 사례도 있다. 『史記評林』(규중2689, 40책 중 34책 영본)이 그것이다. 이 책에는 아래쪽에 ‘南公弼元直印’과 ‘宜春’ 등 南公弼의 장서인 2과가 있고, 위쪽에 ‘萬機之暇’, ‘弘齋’ 등 정조의 장서인 2과가 찍혀 있다. 정조는 통상 아래쪽에 당호인을 찍었지만 이 경우에만 유독 위쪽에 다소 어정쩡한 상태로 장서인을 찍었다.



<그림 6> 개인 장서인을 남겨 둔 사례

南公弼(1715-1763)은 정조의 스승이었던 남유용의 조카이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남유용에게 수학하였는데, 아직 아들 南公轍(1760-1840)이 태어나기 전이라 그 관계는 더욱 친밀하였던 듯하다. 영조는 남유용에게 어린 정조의 교육을 맡기는 대신 조카 南公弼을 지방 수령으로 보내 그 가계를 돋도록 하였다.¹¹⁶⁾ 그러나 남공필은 영조 39년(1763)에 조출하였기 때문에 정조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¹¹⁷⁾ 정조가 특별히 남공필의 장서인을 남기려고 한 것은 남유용에 대한 사제간의 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16)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10월 19일(무인).

117) 南有容, 『雷淵集』 권21, 「從子公弼墓誌銘」.

		
‘元仁孫印’의 도삭	상단에 부착된 ‘元仁孫印’	竝西樓藏 摘文院
『婁子柔先生全集』(奎中4969) v.1		『牧齋有學集詩註』(奎中5105) v.1

〈그림 7〉 元仁孫 장서인의 도삭과 미도삭 사례

元仁孫(1721-1774)의 경우에도 장서인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문원’인이 함께 찍혀 있다. 그 외 ‘이문원’인이 있는 도서 가운데서 개인 장서인이 확인되는 경우로는 柳命賢(1643-1703), 金光遂(1696-?), 柳慶種(1714-1784), 金聖廈(1694-1747) 등의 사례가 더 있다. 이 책들은 모두 『이문원서목』에 실려 있는 책으로 열고관에서 이문원으로 이속된 도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장서인을 도삭한 경우도 ‘홍문관’인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같은 사람의 책이라도 도삭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함께 나타난다. 이 경우도 후자는 이문원 장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그 소장처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문관’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열고관 장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성휘, 이하곤, 김광수, 원인손 등은 당대의 유명한 장서가였다. 이 책들이 정확히 언제 규장각으로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정조는 스스로 세손시절에 새로 들어온 중국책이나 故家의 서적을 구입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¹¹⁸⁾ 또 서호 수는 정조 5년 국내에서 35종의 도서를 구입하여 열고관에 비치하였다.¹¹⁹⁾ 이 외

118) 정조, 『홍재전서』 권161, 「일득록」 1 문학 1 “教曰 予在春邸時 素癖儲書 聞有燕市所購·故家所藏 暱令貿來(待敎臣李崑秀甲辰-1784-錄)”

에도 수시로 국왕과 신료간에 책을 주고 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규장각 도서 중에는 개인 장서인이 찍힌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다.¹²⁰⁾ 중국에서 직접 사오는 것보다는 보다 시중의 장서가들이 소장한 중국본 도서들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3) 강화도 행궁 내부 소장 도서

정조 5년(1781) 3월 강화도 내부에서 이송된 중국본 서적은 109종 1,543권의 방대한 양이었다.¹²¹⁾ 하지만 그 전체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정조와 심염조, 서호수 등이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표 2〉 정조 5년 강화도 내부에서 가져온 도서

서명 서목	『규장총목』	『열고관서목』 (장서각 K2-4654)	『규장각서목』 (奎11670) 중 『열고관서목』	비고
詩經大全	12권	×	×	영락제 칙수본 선덕 8년 하사
禮記大全	18권	18권	×	"
文選(일본판)	12권	×	×	
性理大全	22권	22권	×	영락제 칙수본
資治通鑑綱目發明	106권	×	×	

서명이 확인되는 서적은 『시경대전』, 『예기대전』, 『왜판 문선』, 『성리대전』, 『자 치통감강목발명』 등 5종이다.¹²²⁾

이를 『규장총목』에서 찾아보면 경부의 『시경대전』 12권과 『예기대전』 18권은 모두 永樂帝勅修本이며, 선덕 8년(1433)에 하사한 것으로 '欽文之璽'가 찍혀

119) 『내각일력』 정조 5년 2월 7일.

120) 다음의 글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김수진, 2016 「국가의 장서와 개인의 장서: 공사교직(公私交織)의 역사로 조명한 규장각 중국본 도서」 『한국문화』 75.

121)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8일: 같은 책, 정조 5년 3월 28일.

122) 『내각일력』 정조 5년 3월 29일 “上曰 册子中 多有前所未見者 至於詩傳·禮記倭板·文選·性理大全等書 可謂絕寶 今世似罕有矣 浩修曰 如此冊板及冊紙 雖北京亦難得之矣”

있었다. 『성리대전』은 하사본은 아니지만 역시 영락제 칙수본이다.

그런데, 고종대 전반에 작성된 『열고관서목』(한국학중앙연구원, K2-4654)를 보면 이 중 『예기대전』과 『성리대전』을 제외한 3종의 서적은 이미 열고관에서 사라졌으며,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규장각서목』(奎11670) 중의 「열고관서목」에 서는 나머지 두 종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이 중 ‘欽文之璽’가 찍힌 『詩傳大全』과 『禮記集說大全』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¹²³⁾ 두 책에는 고종대의 ‘朝鮮王寶’와 이후의 ‘李王家圖書之章’이 찍혀 있어서 고종대를 거치며 별도로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책에는 정조와 관련된 장서인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책들은 열고관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정조의 장서인을 찍지는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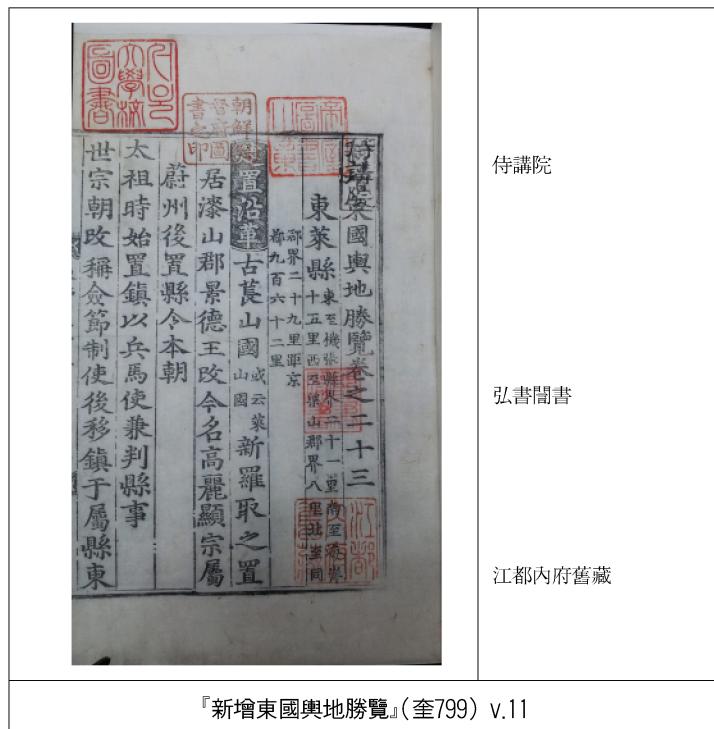
조선본의 경우 강화 내부에서 가져온 39종 637책의 목록이 『내각일력』과 『서고장서록』에 실려 있다.¹²⁴⁾ 이 목록을 토대로 현존 사항을 확인한 결과 11종에서 ‘江都內府舊藏’이라는 인장이 확인되었다. 이전에 강화도 행궁에 소장되었던 도서라는 것을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이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하단의 ‘강도내부구장’인 외에 상단에 ‘시강원’인이 찍혀 있고, 가운데에는 책에 따라 ‘君玉圖書之府’, ‘弘書闇書’, ‘摛文書籍’, 미상 1과 등 4개의 인장 가운데 하나가 찍혀 있다. 이 중 ‘君玉圖書之府’, ‘弘書闇書’, ‘摛文書籍’ 등 3개의 인장은 ‘시강원’인이나 ‘춘방장’인과 함께 찍힌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시강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압인한 시점은 알 수 없다.¹²⁵⁾ 그런데 서호수가 작성한 목록에는 이 책에만 ‘시강원’인이 찍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 책은 원래 시강원에 있던 책이 강화도 행궁으로 갔다가 다시 규장각의 西庫로 들어온 것이다.

123) 『詩傳大全』 12책(장서각, K1-40), 『禮記集說大全』 18책(장서각, K1-76). 두 서적의 책 수는 『규장총목』과도 일치한다.

124) 『내각일력』 정조 5년 6월 29일.

125) 『周易諺解』(奎131).



〈그림 8〉 구 강화도 행궁 내부 소장 도서의 장서인 사례

‘강도내부구장’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강화도 내부에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서인은 정조 5년 6월 규장각으로 옮겨진 이후에 압인된 것이다. 즉, 강화도 행궁의 조선본 도서에는 시강원인이 찍힌 『신증동국여지승람』 외에는 아무런 장서인이 찍혀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장서인은 날인하지 않았다. ‘강도내부구장’인은 강화도 행궁에서 가져온 도서인 동시에 규장각 西庫 도서임을 보여주는 장서인이다.

서호수의 별단과 서고의 서목들, 현존하는 도서를 비교해 보면 내부에서 가져온 조선본에도 모두 ‘강도내부구장’인을 찍은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萬家叢玉』 8책은 강화도에서 두 건을 가져왔고, 규장각 서고의 서목인 『西序書目籤錄』과 『西序書目草本』에도 두 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 후 고종대에 작성된 『西庫書目』 두 종에도 제4책과 제7책이 빠진 낙질본 6책 1질이 수록되어 있다. 현

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제4책과 제7책이 빠진 6책 낙질본이 소장되어 있다.¹²⁶⁾ 이 책은 강화도 내부에서 온 책이 분명해 보이지만 장서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서인을 찍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중국본도서의 경우 현재까지 ‘강도내부구장’인이 찍힌 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본 도서의 종수나 책수가 조선본의 세배 가까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몇 종은 확인될 법하지만 중국본에서 강화도 행궁도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본 도서는 규장각으로 옮겨온 후에도 아무런 장서인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열고관과 서고의 서적 정리에 시차가 있었던 데서 비롯된 듯하다. 중국본 서적은 정조 5년 3월 말에 이문원으로 옮겨와 서호수가 바로 정리하여 『규장총목』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조선본 서적은 정조 5년 6월 말에 이문원으로 옮겨 왔으나 정조 14년(1790) 무렵에 작성된 『西庫藏書錄』에서도 여전히 여타 도서와 구분되어 있다. 조선본은 별도로 관리하며 ‘강도내부구장’인을 찍었지만 중국본 도서는 다른 도서들과 함께 部類의 분류를 따라 정리하고 다른 도서와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열고관 장서 중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장서인은 정조의 장서인이다. 이외에 관인이나 개인 장서인을 도식한 것도 열고관 장서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장서인을 지우고 그 중 일부에 정조의 장서인을 찍었던 것이다. 그러나 열고관 장서의 상당수에는 아무런 장서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쉽게도 장서인을 통해서 열고관 장서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6. 맷음말

정조대 열고관 장서는 정조의 세손시절 장서와 즉위 후의 수입 도서, 옛 홍문관도서, 국내 구입 도서, 강화도 행궁 내부 소장 도서 등 다양한 경로로 조성되

126) 『萬家叢玉』(奎4812).

었다. 그러나 각 도서들이 열고관으로 유입된 데에는 시차가 있었다. 이 글에서 는 『내각일력』,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를 토대로 시간순으로 열고관 장서의 조성 과정을 재구성해 보았다. 정조 3년 『개유와서목』의 편찬과 정조 5년 『규장총목』의 편찬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조는 재위 원년 7월 말 암살시도사건을 계기로 8월 초에 급히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 소장 서책의 보관을 위해 열고관을 건립하였다. 초기 열고관에는 세 손시절의 장서와 강서원에서 가져온 옛 홍문관 도서, 재위 1년 서호수 일행이 구입한 『고금도서집성』, 재위 2년 심염조 일행이 중국에서 구입한 『經義考』 등 수십종의 도서가 비치되었다. 서명웅이 중심이 되어 서책들의 정리와 분류 방안을 강구한 후 정조 3년 말에 『개유와서목』을 편찬하였다. 이 서목은 장서의 목록인 동시에 추가로 구입해야 할 서적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그 후 1년여가 지난 정조 5년 2월 서호수는 국내에서 35종의 중국본 도서를 구입하였고, 3월에는 강화도 행궁에 보관되어 있던 중국본 서적 109종 1,543책을 열고관으로 옮겨 왔다. 이 시기에는 중국 서적의 수입보다는 국내에서 서적을 수합하는 데 보다 주력하였다. 그 정리가 끝난 정조 5년 6월에 『규장총목』이 편찬되었다.

『규장총목』이 완성되고 소장 서적의 윤곽이 드러나자 이를 토대로 장서의 완성을 위한 서적 수집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행이 계획한 서적을 구매하고 돌아온 정조 6년 봄에 이르러 열고관의 서적이 거의 완비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후의 서적 구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규장총목』은 순조 초반에 증보된 것으로 정조 연간의 열고관 도서를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열고관의 조성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조의 세손 시절 장서 외에도, 옛 홍문관과 강화도 내부 장서, 국내 구입 서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옛 홍문관과 강화도 내부 장서는 누대에 걸쳐 수집 보관된 도서로 그 양이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희소한 자료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열고관 장서는 이와 같은 국내 소장본을 수합한 위에 부족한 부분을 수입을 통해 보충한 것이

다. 정조대 열고관 장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고관 장서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래가 다른 서적들의 장서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열고관 장서를 나타내는 특정한 장서인은 없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여러 장서인을 사용하였지만 모든 소장 서적에 장서인을 찍었던 것은 아니다. 또 정조의 장서인이 찍혔다고 해서 모두 열고관에 두었던 책도 아니다. 정조는 열고관 도서 외에도 개인적으로 소장한 서적이 있었고, 두 부류의 도서 모두에 선별적으로 장서인을 찍었다. 따라서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지 않은 책 중에도 정조가 소장했던 책이나 열고관 소장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옛 홍문관 서적과 국내에서 구입한 서적들로 열고관에 유입된 도서들은 이전의 장서인을 도삭하였다. 이 중 일부에는 정조의 장서인을 찍었지만 역시 아무런 장서인을 찍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 이문원이나 시강원 등 다른 관서에 유입된 도서에는 장서인을 도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서인이 도삭된 것은 역으로 열고관 장서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정조 5년 강화도 행궁에서 西庫로 옮겨 온 조선본도서에는 ‘강도내부구장’이라는 장서인을 찍었지만 열고관에 들여온 중국본 도서에는 아무런 장서인도 찍지 않았다. 따라서 장서인을 통해 강화도에서 옮겨 온 책을 판별할 수는 없다.

장서인은 열고관 장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열고관 장서 중에는 장서인이 찍히지 않는 책들도 상당하였다. 이 경우 표지의 서명과 표지의 재질, 서체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열고관 도서는 장서의 조성과 함께 제목을 추출하여 표지에 기재하였다. 이 서명이 『규장총목』에 기재된 서명이다. 또 본래 4침안 선장인 중국본 도서를 5침안 선장으로 개장하고, 표지도 배접지를 붙이고 도침한 조선식 표지로 바꾸었다. 『규장각지』에서는 개장을 할 때 평안감영에서 공급하는 糸精紙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¹²⁷⁾ 현재 『고금도서집성』 등에서는 배접의 두께나 섬유의 혼합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표지가 극

127) 조계영, 2009 「조선후기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 『한국문화』 48, 29-48면.

히 얇은 황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꺼번에 개장하였기 때문에 서명을 기재한 서체들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표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열고관 장서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주제어 : 규장각, 열고관, 정조, 열고관 장서, 규장총목, 장서인

투고일(2018. 4. 27), 심사시작일(2018. 5. 24), 심사완료일(2018. 6. 3)

〈Abstract〉

Creation of Kyujanggak Yeolgogwan Collec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Park Hyun Soon *

Kyujanggak(奎章閣) Yeolgogwan(閱古觀) was a library that housed books from China collected by King Jeongjo. Article from Jeongjo Sillok shows the creation of the Yeolgogwan collection. However, since it recorded the long term event in such a contracted way, it does not fully deliver the whole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Yeolgogwan collection based on chronicle materials such as Naegagillyeok(內閣日曆),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and Ilseongnok(日省錄). It also examines the influx route of the books through collection seals imprinted on the Chinese books stor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Noticeable aspect is that large portion of the Yeolgogwan collection consisted of books from Old Hongmungwan(舊弘文館) and Gangdo library(江都內府藏書), and individual collections purchased within the country. Yeolgogwan collection was created first by collecting domestic books and then supplementing the shortage by importation. This aspect is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 related to Yeolgogwan collection.

Key Words : Kyujanggak(奎章閣), Yeolgogwan(閱古觀), King Jeongjo, Yeolgogwan collection, Kyujangchongmok(奎章總目), collection seals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